

# “전기요금 체계, 대기업 보호정책”

### 박승 전 한은 총재,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강연 “한전, 산업용 빛지고 가정용 많이 받아 14조원 이익” “성장재분배 정책 통해 경제 성장 이끌어야”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성장재분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의 현안 과제로 꼽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한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강연을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낙수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으로는 과거와 같은 3%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는 “그동안 외국에서 외채까지 얻어다가 대기업이 투자하게 했다”며 “가계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라고 하면서 대기업에 투자자금을 대주러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낙수효과 기조의 정부 정책은 “대기업 보호 정책”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불거진 전기요금 논란을 제시했다.

지난 6~8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의 킬로와트(kWh)당 81원, 일반용은 106.7원으로 가정용·산업용 간 전기요금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둘러싸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특혜가 적용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는 “한국전력은 산업용에서 빛지고 가정용에서 많이 받아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올해 14조원의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대표적인 구시대적 모델이다. 산업용을 올리고 가정용은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 새로운 성장엔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소비 뿐”이라며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법인세를 올려 가계소득을 도와주거나 일본처럼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장기침체의 늪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결혼, 출산, 육아의 과정을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전 총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자 장기침체의 가장 큰



눈길 사로잡는 LG 올레드 터널 LG전자가 오는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6'에서 곡면 형태의 55인치 올레드 사이니지 216장을 이용해 만든 너비 7.4m, 높이 5m, 길이 15m 규모의 올레드 터널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원인”이라며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들면서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인 1.68명에 미치지 못하고 33위에 머물렀다.

그는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아이를 안 두는 것보다 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며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는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 저리 임대 주택을 지어서 저소득 신혼부부가 모두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실업문제, 양극화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한은은 경제성장, 고용 등 국가경제에 폭넓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박 전 총재가 7월 한국경제포럼에 개제한 ‘한국경제 구조와 위기개혁’ 논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뉴스시스

## 테슬라, 11월께 국내 첫 매장 개설

### ‘스타필드 하남’에 리테일 스토어... 위치정보사업 허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국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오는 11월께 국내 첫 번째 매장을 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 등 7개 기업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위치정보사업은 고객의 위치를 전자 통신기기로 수집해 서비스업체 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고객의 차 위치를 수집해 자체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의 법인을 등록한 테슬라는 지난해 한글판 홈페이지를 열고 보급형 모델3과 모델S, 모델X 사전 예약을 받으며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슬라의 국내 오프라인 첫 매장은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에 오픈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테슬라와 신세계 점포 내에 테슬라 리테일스토어를 오픈하고 향후 테슬라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스타필드 하남에 국내 최초로 64평 규모의 테슬라 리테일 스토어를 열기로 했다.

테슬라 측은 “향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2017년, 2018년 추가 오픈할 신세계 점포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테슬라는 고급 세단 ‘모델S’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오는 2017년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는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그룹 내 유통채널 총 25곳에 테슬라 고객 전용 충전소인 ‘테스티네이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 한국 외환거래 비중 0.7%... 52개국 중 14위

### 3년만에 1단계 상승... “장의 금리파생상품 거래 규모 17위로 2단계 상승”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위로 3년 전보다 1단계 올라갔다. 장의 금리파생상품 거래 규모 순위도 17위로 2013년 4월 에 비해 2단계 상승했다.

2일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IS는 3년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세계 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52개국이 참여했다.

현·선물환과 외환·통화스와프, 통화화환선이 거래되는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5조3000억 달러로 2013년 4월(5조4000억)보다

5.0% 감소했다.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감소한 것은 조사가 실시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현물환 거래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물환 거래는 1조7000억 달러로 3년 전(2조460억 달러)보다 19.2% 감소했고, 선물환(7000억 달러)과 외환스왑(2조4000억 달러), 통화스와프(1조 달러)는 각각 3.1%, 6.4%, 7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75억2000만 달러에서 478억1000만 달러로 0.6%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직전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순위로는 조사국 중 14위를 기록해 3년 전보다 1단

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 처음 참여한 1998년 29위를 기록했다가 2001년에는 16위로 13단계나 경종 뛰어올랐다. 그 후 2004년까지 16위를 유지하다가 2007년 18위로 떨어졌다. 3년 후인 2010년에는 다시 13위로 올라섰고, 2013년에는 15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외환거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2조4000억 달러)으로 비중이 37.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미국(1조3000억 달러, 19.4%), 싱가포르(5000억 달러, 7.9%), 홍콩(4000억 달러, 6.7%), 일본(4000억 달러, 6.1%) 순이다.

통화별 거래 비중(합계 200%)을 보면 미 달러화가 87.6%로 가장 높았다. 유로화는 3년 전 33.4%에서 31.3%

로 하락했다. 일본 엔화도 23.1%에서 21.6%로 줄어들었다.

4월 중 글로벌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2조7000억 달러로 2013년 4월(2조3000억 달러)보다 15.4% 늘었다.

금리스와프가 33.3% 증가하면서 전체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선도금리계약(7000억 달러)과 금리옵션(2000억 달러)이 각각 3년 전보다 각각 13.1%, 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은 하루 평균 68억2000만 달러였다. 3년 전(78억4000만 달러)보다 15.6%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서 0.2%로 떨어졌다. 다만 국가별 순위로는 19위에서 17위로 2단계 올라갔다.

미국의 비중이 41%로 가장 컸고, 이어 영국(39%), 프랑스(4.7%), 홍콩(3.6%), 싱가포르(1.9%), 일본(1.8%) 등의 순이다. /뉴스시스

## 한국지엠, 8월 국내판매 1만2773대

### 전년비 감소... 스파크·말리부·다마스·라보는 긍정적

한국지엠주식회사가 8월 한 달 동안 총 3만5971대(내수 1만2773대, 수출 2만3198대)를 판매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8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경차 스파크와 중형차 말리부 그리고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인 다마스라 라보가 긍정적인 판매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8월 실적을 이끌었다.

세보레 스파크는 지난 한달 간 5850대가 판매됐으며 올해 7개월 연속 5천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게 됐다.

이로써 스파크는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뛰어난 상품성과 경제성까지 갖춰 고객의 지속적인 호응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말리부는 신형 모델에 대한 고객의 꾸준한 반응에 힘입어, 8월 한달 간 총 2,777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02.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의 지난달 내수판매는 총 832대로, 전년 동월 대비 292.5% 증가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는 최근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적용한 2017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한편, 한국지엠의 8월 한 달 간 완성차 수출은 2만3198대를 기록했으며 한국지엠의 2016년 1~8월 누적 판매 대수는 총 38만9460대(내수 11만3912대, 수출 27만5548대, CKD제외)를 기록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4G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소비량 5GB 돌파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한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사상 최초로 5GB(기가바이트)를 넘었다. 동영상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소비가 늘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데이터 트래픽(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4세대(G) 스마트폰 가입자 1명당 트래픽이 5.11GB(5235MB)로 집계됐다. 1GB는 1024MB다.

4G 스마트폰 가입자 한달 데이터 사용량은 2012년 12월 1.79GB(1836MB)

에서 2014년 8월 3GB(3123MB), 지난해 10월 4GB(4147MB)를 돌파했다.

데이터 소비량은 동영상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전체 트래픽 중 56.6%가 VoD, 실시간 스트리밍 등 동영상 분야에 집중됐다. 웹포털(16.7%), SNS(1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트래픽은 3.76GB(3841MB)다. /뉴스시스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생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